

변화를 향한  
카운트다운! 3,2,1

**NOW**



교육극진리

## 몇년째 똑같은 총학생회 공약, 결국 문제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입니다.”

전공수업 확충, 학생공간 확대,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

매년 반복되는 총학생회 공약들 결국 제일 큰 문제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입니다.

몇 년째 반복되는 요구들, 총학생회는 실현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공약들은 빈 약속에 그쳤습니다.

## “매 번 학생들에게 투쟁에 참여해달라고 하지만, 총학생회가 바꾼 건 뭐지?”

2011년 법인화 전체총회, 2016년과 2017년의 시흥캠퍼스 전체총회...

지금까지의 총회는 공지에 몰려 더 이상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총학생회는 수업, 학생공간 등 일상의 문제를 제1과제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문제를 내세우며 당신의 목소리를 모아내겠습니다.**

## 2019년, 서울대 학생들의 일상을 바꿀, **교육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성적 평가제도, 전공수업 확충, 학생공간 확대, 학교 운영 학생 참여 등 문제들을 2019  
서울대인 요구안으로 채택, 실현을 위해 전체 학생이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 2019 서울대인의 어퍼컷

## 우리에게는 승리의 경험도 있습니다.

NOW의 정후보 윤민정은 2018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을 지내며  
약 20여년 만의 단과대 전체학생총회를 성사시켰습니다.

16동 학생 공간 및 강의실 야간개방, 전공수업 확충, 학생공간 추가 확보 등  
몇 년간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상의 요구를 실현했습니다.



피로감과 무력감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참여'로 일상을 바꾸는  
힘 있고 실력있는 총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 교육공동행동 TIMELINE

**12월 - 2월**

자료조사 및 의제 설정

요구안 초안 설정, 단과대  
방문 토론

요구안에 대한 학교와의  
면담, 상황파악, 조사

**3월**

학우들의 의견 듣기

요구안에 대한 전체 학생 의견  
조사 및 공개 피드백 진행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요구안 및 교육공동행동  
구체 방안 확정

**4월 초**

교육공동행동 진행

<서울대인의 N대 요구안> 발표,  
교육공동행동을 통해 의결

이후 학교와의 협의, 항의 방문,  
학생참여 퍼포먼스 등을  
통해 요구안 실현

## 당신의 일상 변화 RIGHT NOW!

부족한 수업을 채워라! 원하는 수업을 찾아라!

## 수업권리찾기 PROJECT

### 다음 중 몇 개에 해당하시나요?

1. 전공필수강의 수강신청에 실패한 적이 있다.
2. 전공수업이 너무 부족해서 졸업은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3. 수백명이 같이 듣는 대형강의, 이게 대학강의인지 인강인지 의심스럽다.
4. 강의계획서가 안 올라와서 답답하다.



### 바꾸고 싶다면? 답은 NOW와 함께하는 수업권리찾기 PROJECT!

#### 하나, 우선확충대상 10대 강의 선정 및 개설 요구!

전체 서울대 대상 대규모 강의 수요조사  
학생 수요, 개설 빈도, 타과생 수강률 등 고려해 강의 부족 사례 조사  
우선확충 강의 10개 선정 후 추가개설 요구

#### 둘, 단과대 및 학과별 강의 추가 개설 요구!

학생 수요 정보를 각 학과에 제공  
강의수요조사 실시 등 학생 수요 반영한 강의개설 요구

#### 셋, 강의계획서 업로드 의무화!

#### 넷, 강의평가 공개 요구!

모든 수강생이 매 학기 참여하는 강의 평가,  
문항 개선 후 수강신청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 공개 요구



# 당당한 교실 만들기 NOW!

교수님,  
제가 왜 C+이죠?;

## 의무적 상대평가 STOP!

“A등급은 30% 이하,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70% 이하, C등급 이하는 30% 이상의 상대평가 비율을 명확히 지켜서 성적을 부여하도록 한다.”

“드랍 기간 이후의 인원을 최종 성적부여 대상인원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지난 9월 7일 학사과에서 발송한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일부규정개정(안)'

학교 마음대로 바꾼 성적평가제도, NOW 정후보 윤민정은 사회대 학생회장으로서 가장 먼저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1614명의 학생들이 서명했습니다.

**NOW는 앞으로도 대응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 서명운동 확대 및 단과대별 의견 듣기
2. 학사위원회에 방문, 의견전달
3. 일괄적인 상대평가 기준 모두 폐지, 예측 가능한 채점기준으로 대체 요구



## 타학과 전공 S/U 확대

“인문학도가 공대 수업을, 자연과학도가 사회과학 수업을 부담 없이 들도록 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

김기현 교무처장

학교가 먼저 제안한 타과 전공 수강시 S/U 학점부여 약속, 어디로 갔나요? 실상은...

2017년 2학기  
총 9개 단과대,  
23과목



2018년 1학기  
총 11개 단과대,  
26과목



2018년 2학기  
총 3개 단과대,  
14과목

**왜 이렇게 축소된거죠?**

**NOW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앗, 학생공간 화장실 보다 적다! 학생공간특공대

변화를 향한  
카운트다운! 3,2,1

**NOW**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 학생공간 면적이 화장실 전체 면적보다 작다는 사실!

**화장실 > 학생공간**

**학생공간 확보, 이렇게 하겠습니다!**

## 1단계, 공간 이용률 & 학생 수요 전수조사

넓은 관악 공간,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단과대 별 필요 공간”과 “학내 유휴공간”을 조사합니다.

## 2단계, 공간 관리주체와 교섭, 당사자 학생들과 공동 행동

유휴공간으로 파악된 곳의 관리주체를 알아내 교섭합니다.  
필요시, 당사자 학생들의 뜻을 모으는 공동 행동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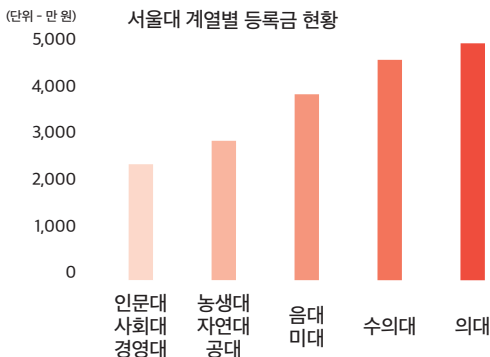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등록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 등록금 파헤치기 NOW!

변화를 향한  
카운트다운! 3,2,1

**NOW**



같은 서울대지만 단과대에 따라 천차만별인 등록금.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현행 차등 등록금은 80년대에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한 것이 유지되어온 결과입니다.

**당신의 등록금 권리찾기, NOW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응에서 한 판 붙자!**

실험실습비/재료비 책정근거 공개,  
실습/재료비 지원방안 확보, 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둘, 학생이 주도하는 예산 재정감사**

**셋, 9학점 이하 수강시 등록금 감액**

**넷,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원금 확대  
공공성 UP, 학생부담 DOWN**



누구인지도 모르는 총장에게 학교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 총장직선제 NOW!

변화를 향한  
카운트다운! 3,2,1

**NOW**

등록금, 징계규정, 교수임명, 학사제도…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서울대학교 총장**

**그런데, 서울대 총장은 체육관선거로 뽑는다?**

알고 계셨나요? 타 대학 총장님이 우리 학교 총장을 뽑는다는 사실!

**[학내] 총장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 도출**

교수, 직원 등 다른 주체들과 함께 새로운 총장 선거제도 방식 논의/합의 도출

**[학외] 총장직선제 입법으로 나아가자!**

전국 대학생들과의 연대를 통해 '총장직선제'를 대학 관련법에 명시



학생에게 권력을,

## 서울대 공식의결기구 학생참여

학교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평의원회,  
학생 의결권은

**'0'**

학교 돈을 관리하는 재경위원회  
졸업/성적규정을 정하는 학사위원회  
학생과 교수를 징계하는 징계위원회  
:  
어디에도 학생의 자리는 없습니다.

**이제는 학교를 바꾸기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하나, 공식의결기구 학생참여를 위한 정책연구TF 구성**

**학생들의 뜻을 모으는 교육공동행동!**

**둘, 학교/국회와 논의해 '서울대법'에 학생참여 명문화**

# 교환학생 프로그램

## 교환일기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심했는데, 걱정이 태산이다.

“해외에서 자취방은 어떻게 구하는거지??”

“이 학교 다녀온 선배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그런 자리는 만들어 볼 수 없나?”

“내 학점으로는 어느지역 어느대학정도를  
지원해야하는거지?”

좌충우돌 한 학기가 지나고 무사히 교환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왔다!  
교환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더 큰 걱정이 생겨버렸다.

“학점인정은 대체 어떻게 받는거지???”

“학점인정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는데  
이번 막학기 몇 학점 이수를  
해야하는걸까?”

“아니,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강의계획서를 한글로  
일일이 번역해가야 한다고요?”

## 실행 방안

### 1 단계

학점인정에 필요한  
서류양식 통일.



### 2 단계

서울대 내부에서 학점인정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 및  
최소한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수업 등의 정보 제공



### 3 단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기참여자들이  
신참여자들의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킹 제공



# 외국인 학생 복지

대학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확장된 국제화정책, 외국인 학생 증가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복지는 전혀 마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책임감없이 내던져진 제도들을 속 수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 대책정책들이 필요합니다.

### 하나, 랭기지 배리어프리

심지어, 등록절차를 설명하는 메일이 한국어로만 작성되어  
어떻게 등록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이 언어 때문에  
가장 많은 불편함을 겪는 부분인, 동아리소개 책자나  
본부의 공지사항에 영어를 함께 표기

EX) 동아리책자, 캠퍼스 지도, 등록절차  
/수강신청 등의 본부 공지사항 등

### 둘, 수강신청 일정 통합

2학기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수강신청기간이  
기존 재학생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수강신청 TO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수업을  
채우는 방식으로 수강신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강신청 통일하기 or 추가인원TO 만들기 등의  
대안들을 만들어 본부에 제안

# 복수전공 이수 학점 완화

수 많은 인문계열 학과에서 복수전공이 졸업 필수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외교, 경제, 경영 복수전공 합격 컷트라인은 4.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외의 수많은 전공들도 듣고 싶지만  
학점 때문에 이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복수전공 이수 선발기준이  
너무 무책임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대기번호 제도 도입**

**둘, 추가합격 기간 설정**

**셋, 한 학기에 신청할 수 있는 전공 수 제한**